

「2026 K-Fashion IP 캠페인 서포터즈 챌린지」 개최

성래은 한국패션협회장 "창의적 디자인과 지식재산 보호는 K-패션 경쟁력의 시작"
당신의 콘텐츠가 K-패션을 지킵니다!!

- 한국패션협회(회장 성래은)가 운영하는 패션IP센터는 패션 지식재산권(IP) 보호 인식 확산과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「2026 K-Fashion IP 캠페인 서포터즈 챌린지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산업통상부, ‘K-섬유패션 협력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챌린지는 국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참여형 캠페인 방식으로 운영된다. 특히 패션산업 내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,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정품 소비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.
- 제작 내용은 ‘Don’t Copy · Don’t Sell · Don’t Buy’ 실현을 위한 콘텐츠로 패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위조상품 유통 근절 메시지를 담은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.
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서류 및 콘텐츠 심사를 통과한 서포터즈들은 약 한 달간 SNS 캠페인을 직접 운영하게 되며, 본 챌린지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들에게는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을 지원한다.
- 아울러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, 캠페인 확산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할 최우수 콘텐츠에는 공식 홍보와 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이자 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“K-패션의 경쟁력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지식재산 보호에서 시작된다”며 “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, 창작을 존중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